花山府院君 贈右議政 諱 復

화산부원군 증우의정 휘 복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증贈 보조공신輔祚功臣 대광보국大匡輔國 숭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 행行 가선대부嘉善大夫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使 겸兼 절제사節制使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관한 문헌 자료를 소개한다.

화산부원군(17세)(추밀공파)은 정헌공正獻公 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의 증손 밀직공중귀密直公中貴의 손자로 복성공공안부윤復成公恭安府尹 증호조판서贈戶曹判書 권숙權肅의 차남이다. 생년월일은 미상이나 조선개국 전후인 1392년 무렵으로 추정되며 역강力降하던 장년초인 40세를 전후하여 사고로 순국하였다.

연려실기술然藜室記述2권 태종조고사본말太宗朝古事本末에 보면 부원군의 직위가 도절제사都節制使로 나온다. 조선조 군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는데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병마절제사都節制使로 수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라 했다. 그리고 도절제사는 그 품계가 2품이면 접두어로 도都자를 붙였으므로 공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라 절제사節制史라 한 것이 맞을 것이다.

여지승남에 보면 압록강에 연한 평안도에 강계는 태종 13년 1413년부터 도호부都護府가 되었고 여기에 세종24년 1442년 도절제사본영都節制使本營을 설치했다가 동 28년 1446년에 폐지하고 동 32년 1450년에 다시 설치했다가 단종端宗 1년 1453년에 이를 폐지했다.

공이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의 판사判事로 부임했던 세종世宗 16년 1434년에는 이곳의 절제사節制使의 본영本營이 없었다.

공의 비문에 세종 16년 1434년 갑인에 이조좌참의吏曹左參義로 승진해서는 10월에 외직으로 나가 의주목사義州牧使가 되고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事를 지냈으며 을묘(1435년)에는 강계절제사江界節制使로 승진했다. 고 나오는데 의주목사로 나간 기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을 수가 없다 아마도 강계와 같이 의주에도 강계도절제사江界道節制使의 관할인 진영鎭營이 있고 공의 강계의 진영만이 아니라 그곳의 병사兵事도 맡아 다스렸던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된다. 어쨌든 공의 강계에서의 마지막 직함은 가선대부嘉善大夫 강계도절제사江界道節制使 겸 판강계부사判江界府使를 맡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안도의 전체병사를 장악하는 직함은 절제사보다 한단계 위인 절도사節度使이다. 즉 육군은 평안도平安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이고 수군은 평안도平安道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이다. 이절도사 품계는 관찰사와 같은 종2품 가선대부가 할 수 있으며 평화 시에는 관찰사 즉 감사監司가 겸하기도 한다.

△화산 부월군 신도비 수갈 고유제를 올리고 있다.(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 177)

공이 판 강계도부사가 3품직인데 2품계로서 낮은 직함에 보임되었기 때문에 부사府使대신 판사判事로 그 직위의 호칭을 높인 것이다. 공이 태종 17년 1417년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조선초기에는 문무文武양과를 정과正科로 보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무과 출신의 최윤덕崔潤德이 좌의정左義政에 영부사領府事까지 되고 남이南怡가 17세에 무과에 장원하여 27세에 병조판서에 오를 수 있었다.

공이 무과를 한 것은 최윤덕이 무과에 급제한 7년 뒤이다. 공에 대한 임금의 사제 문에 그 무과 급제에 앞서 연방에 올랐다. 칭한 것이 있는데 이는 조선조에서 소과사마시司馬試를 칭하는 말이고 대과는 계방이었다. 그렇다면 무과가 소과에 속했던가. 이는 아니고 문무文武의 정과正科였었다. 과거는 대과 소과 잡과로 대별되는데 대과는 문무 양과 이고 소과는 사마시라고도 하는 생원진사시 이고. 잡과雜科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律과 등이었다.

· 동정

▲권정달 본원총재·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이사장은 23일 하회마을 전수회관에서 열린 제22회 전통문화교류공연 및 제32회 정기발표 공연을 참관하고 전수자들을 격려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14일 민선5기 제21차 시민과 대화의 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과 민원인의 시정 발전 방안, 고충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은 13일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에 위치한 신덕1 양수장에서 직원 및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름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방제 체제구축을 위한 가상 방제 훈련에 참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5일부터 2주동안 '권도엽 장관과의 SNS소통 1번지' 코너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권동일(55)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표준인 미국 기계기술자협회(ASME)표준인증평의회 대의원으로 최근 임명됐다.

江陵 大司成公宗會 제34회 花樹會

대사성공(諱 悰) 종회는 지난 6월 24일 옥천동 쌈지공원에 위치한 보진당(선조 20世 士鈞 별당)에서 족친 54명, 부녀회 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수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는 권현주 종회재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능동묘역을 행하여 망배 후 원로고문과 원거리에서 참석한 족친을 소개하였다.

권명준 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단오날이면 우리 대사성공종회 화수회를 갖는 날로 이제 그 전통이 자리 매김하는 것 같다며 조상님이 있기에 후손이 있고 조상님을 섬기는 정성이 클수록 후손들의 단합이 큰 것이니 이 화수회의 결속된 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며 삼복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였다.

△대사선공총회 화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명준 회장

이어 권승옥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화수회가 34회를 이어온 모임으로 금년에는 부녀회까지 결성하여 부부 일심동체란 말과 같이 종회 발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강릉향교 전교 강릉종친회 권오윤회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종친여러분 합심과 열렬한 지지로 권성동 종인이 큰 표차로 당선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고 이어 재무가 전반기 종무활동사항을 보고했는데 금년도 새 소식으로 우리 문중내 부녀회가 지난 3월에 결성되어 초대회장으로 장문자(퇴곡댁 종부)씨가 선임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가족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며, 두 번째로 강릉시청에서 지원 받아 우리종중의 숙원사업인 저동 입향조 현령공 산소 앞 도로를 아스콘으로 재포장 했고, 재실부근에 주차공간을 확보되었으니 추향제 때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토의사항에서 상정된 보진당 개방 건에 대하여는 대성회월례회의 개최, 부녀회 다도강습회, 족친 보학강좌 등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의견으로 결정지었다. 회의를 마치고 부녀회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보진당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단오장에 나가 지역축제에 참여 하였다.

〈권현주 대사성공종회 재무〉

정조공파종회 보학강좌 및 장학금 수여식

정조공파종회(회장 권기룡)는 지난 7월 13일 오전 9시30분, 안동시 동부동 정조공파종회 사무실에서 좌족 80여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에 이어 권용석(연세大) 등 35명의 대학생에게 장학증서와 금일봉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권기룡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서 권기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좌족은 조상덕분에 장학금이 조성되여 후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장학생여러분은 훌륭한 인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권오덕씨(35世)가 안동권씨연원, 정조공파원류 등에 대해서 30여분간에 걸쳐 보학강좌를 하고 오료를 하면서 파족간의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했다.

〈권혁세 기자〉

〈1면에 이어〉

59세에 졸하니 문경(文景)의 시호가 내렸으며 단종 1년 영의정부사에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으로 추증되었다.

삼남 **제간공(齊簡公) 규(跬)**는 태종 4년에 경안궁주(慶安宮主)에 장가들어 부마가 되며 길천군(吉川君)에 배하였다. 태종16년 길창군(吉昌君)으로 개봉되고 세종이 제간(齊簡)으로 증시하였다.

4남 **안숙공(安肅公) 준(蹲)**은 세종 11년 형조좌랑에 보임되어 청단(聽斷)이 노성(老成)하고 고관의 위압에 흔들리지 않아 호평이 났고 호조좌랑이 되어서도 전답의 품등을 조정함에 명성을 얻었다. 또 형조정랑시 적체된 송사를 명석히 부결하여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실렸다. 단종 1년 대사헌(大司憲)이 되고 세조 1년 형조판서(刑曹判書), 세조 3년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내고 55세에 졸하니 **안숙(安肅)의 시호가 내리고 부조지전(不祧之典)이 내렸다.**

4남 매헌공(梅軒公) 우(遇)는 정몽주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우왕 3년 장원하고 사마시에 급제하여 성균관 박사 되고 태종 14년 독권관(讀卷官)이되어 정인지(鄭麟趾) 등을 급제시켰는데 감재(鑑裁)가 밝아 명인을 발탁하였다. 세종 1년 57세로 졸하였다. 그간 시호가 알려진 바 없으나 조선 중기 서지학자(書誌學者) 김휴(金烋)의 해동문헌총록과 동국명현록에 의하면 **시호가 문숙(文肅)**으로 나온다. 매헌공(梅軒公)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는 한성판윤을 지낸 판윤공 조(措)이고 차자는 **호당공(湖當公) 채(採)**로서 태종 17년 생원시 장원(壯元)하고 식년시 급제하였다.

임금은 인재를 양성키 위하여 집현전 문신 중 **장래성 있는 자를 뽑아 사가독서(賜家讀書)케 하는데 공이 수선(首選)으로 뽑혔으니 호당지시(湖當之始)이다.**

공은 세종 14년 국재공의 효행록 서문을 짓고 세종 20년 정몽주의 포은시권(圃隱詩卷)에 서문을 지었다. 또 작성도(作聖圖)와 천인심성설(天人心性說)을 지었다. 동년 급 병사하니 필원잡기에 '권채가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더니 불행히 일찍 죽었다' 하였다. 3남은 참판공 기(技)로서 세종 14년 식년시 급제하여 강릉부사, 이조참판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4자 안(按)은 현령을 지냈다.

5. 鷄林府院大君 正獻公 諱 煦 와 麗末 政勢

계림부원대군 정헌공 휘 후 려말 정세

정헌공은 국재공 보(溥)의 제 3자로서 고려 충렬왕 22년 송도에서 출생하였다. 초명은 권재(權載)이며 충선왕이 왕후(王煦)로 사성명(賜姓名)하였다.

정헌공은 고려 후기 고려가 몽골에 침입받아 몽골(1271년 원나라로 개명)의 간섭을 받는 시기에 태어나 충선왕의 아들로 입적되어 왕과 함께 元에서 지내는 기간이 많았다.

고려 23대 고종 18년(1231년) 몽골의 침입을 받아 국토가 피폐화되고 장남이 볼모로 원(元)에가 원의 공주와 결혼하고 왕위에 오르니 25대 충렬왕(忠烈王)이다.

충렬왕은 원의 내정간섭이 심하여 1297년 왕위를 세자에게 선위하였으니 26대 충선왕(忠宣王)이며 충선왕은 즉위하자 광범위한 개혁을 하였으나 권신들에 의해 원나라의 명으로 실각하고 1298년 다시 충렬왕이 복위하였다.

1308년 충렬왕이 죽자 충선왕이 다시 복위하여 정치혁신을 단행하였으나 1313년 아들에게 선위하였으니 27대 충숙왕(忠肅王)이다.

충선왕은 1320년 원나라 환관 백안독고사의 모함으로 티벳으로 유배되었다.

1316년 상왕인 충선왕의 조카 고가 원나라에 충숙왕(忠肅王)을 무고하여 왕은 5년간 연경에 머무르고 1325년 귀국하여 1330년 세자(28대 忠惠王)에게 양위하고 원으로 들어갔으나 충혜왕(忠惠王)이 실정으로 폐위되자 충숙왕(忠肅王)은 1332년 다시 복위하였다.

29대 충목왕(忠穆王)은 볼모로 원에 갔다가 8세에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30대 충정왕(忠定王)까지 고려는 사실상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31대 공민왕(恭愍王)은 원에서 노국공주를 비(妃)로 맞고 1352년 즉위하자 몽골 관제의 폐지와 명나라와 협력, 영토를 수복하는 등 국위를 떨쳤으나 국정을 신돈에게 맡겨 국운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정헌공은 고려 국운의 쇠퇴기인 1296년 출생하여 1352년 별세하니 고려의 난정기를 살면서 마음과 몸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함이었다.

東史에 의하면 정헌공은 부친 국재공의 문인 중 1인이었으며 정헌공과 충선왕과의 인연은 충선왕(忠宣王)이 백씨 창화공(昌和公) 준(準)에게서 공의 이름을 듣고 낭장(郎將)에 배하였으며 삼사(三司)의 판관(判官)을 삼았다. 충선왕 3년(1311년) 왕이 원나라로 불려갔는데 공은 16세로 호종하니 충선왕은 성을 왕(王)씨로 이름을 후(煦)로 사성명하여 아들로 삼았다.

공은 사복시부정을 거쳐 충숙왕 1년에 상중대광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이 되고 충숙왕 3년 **21세로 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이 되었다.**

공은 충숙왕 7년 상왕인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 만권당(萬卷堂)을 세우고 서적을 수집하여 고려와 문화교류에 힘썼는데 충선왕은 대유학자를 불러 연구케 하면서 공의 매부인 익재 이제현(李齊賢)으로 하여금 학술토론 시켰다.

같은 해 12월 원의 환관의 모함으로 충선왕이 유배되니 공은 황제에게 대신 갈 것을 청했다.

국재공과 창화공, 익재, 권한공 등이 상왕의 구명을 청하였고 원의 황제가 즉위하자 사면되었다.

충선왕이 51세로 죽자 공은 재궁을 받들고 귀국하여 종신토록 제사하였다. 공은 충혜왕 3년 계림군공(鷄林郡公)의 자격으로 원에 가서 충선왕과 충숙왕의 시호를 받아 오고 2년 후 8세로 즉위한 충목왕을 모시고 귀국하자 모부인(母夫人) 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人)이 별세하였는데 상중에 기용되어 **첨의우정승(僉議右政丞)이 되었다.**

충정왕 1년 공은 원에 가 원자가 습위하여 부패정치를 막으려 원에 유학 중인 강릉대군과 긴밀히 일을 도모하고 귀로에 요동에서 병환으로 졸하니 향년 54세였다.

충정왕(忠定王)은 15세에 공민왕에게 손위하고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의 공로로 후일 공민왕 묘정에 배향신이 되었다.

마지막 관직은 순성병의동덕보리공신 삼한벽상삼중대광 도첨의정승 판전리사 상호군 계림대원부군(純誠秉義同德輔理功臣 三韓壁上三重大匡 都僉議政丞 判典理事 上護軍 鷄林府院大君)이다. 정헌(正獻)의 시호를 내렸으며 우왕 2년 묘정에 배향되었다.

공은 사람됨이 강정 장중하고 체격이 꿋꿋하여 의연하였으며 평생 청렴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고 폐해를 없앰에 마음을 썼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기온리(하포리)에 쌍분이며 묘지문은 대제학 초은 이인복(李仁復)이 짓고 영돈령부사 권홍(權弘)이 썼다.

아들은 밀직공(密直公) 왕중귀(王重貴)이며 충숙왕 4년(1335년) 출생하여 공민왕 5년 광록대부(光祿大夫)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었다.

명나라의 기세가 상승일로에서 원나라가 약화되었지만 고려는 원나라의 종주권이 컸다. 공민왕의 배원정책으로 폐위되었다가 복위되는 공민왕 13년(1364년) 왕은 공을 동지밀직사사로 복직시켜 원에 사신으로 보냈다.

복직된 공은 다음해 신돈(辛旽)의 출현을 저지하려다 파직되었다.

공의 묘소는 기온리 선고 묘 우측에 쌍분으로 있으며 후손 희문(熙文)이 비문을 지었다.

밀직공은 부윤공(府尹公) 諱 숙(肅)과 집의공(執義公) 휘 엄(嚴), 도(道)를 두었으며 숙(肅)은 대사헌(大司憲)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르고 숙의 아들은 좌윤공(左尹公) 순(循)과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복(復)이다.

6. 福安府院君 諱 謙

복안부원군 휘 겸

국재공의 4남 겸(謙)은 충숙왕 초년에 발탁되어 민부전서(民部典書)가 되었다. 충숙왕이 실정으로 원(元)에 불려갔을때 공이 시종하였다. 환국하여 공은 2등공신에 녹훈되고 복안부원군(福安府院君)이 되었다. 동지밀직사사가 되고 공민왕 천립(薦立)에 공을 세워 삼한벽상삼중대광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이르렀다. 아들 항(恒)은 공민왕 3년 서거정과 함께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되었다.

7. 鷄林府院君 益齋 文忠公 李齊賢

계림부원군 익재 문충공 이제현

국재공의 둘째 사위로서 시중 이진(李瑱)의 아들이며 익재(益齋)는 자호이다.

공은 15세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였다. 29세에 시를 지으니 사람들이 애송하였다. 34세에 지공거(知貢擧)가 되니 사람들은 훌륭한 인재를 뽑았다 하였다.

48세에 충목왕이 공을 서연(書筵)의 스승으로 삼았다. 66세 임진년 추성량절동덕협의찬화공신을 내리지만 사퇴하였다.

70세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고 76세에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군되고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문충(文忠)의 시호를 받았다.

공은 자품이 중후하고 학문이 보익(輔益)하며 정대하였다. 공의 시문은 익제난고(益齊亂稿)라 명명하였으며 역옹패설(櫟翁稗說)의 집필과 효행록을 지었다.

뛰어난 유학자로서의 공은 성리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은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백이정(白頤正)의 제자였고 사서집주(四書集註)를 간행하여 성리학의 보급에 크게 노력한 국재공의 문생이요 사위였으며, 제자가 이곡(李穀)과 이색의 부자였다는 학통(學統)으로 보아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공이 만권당에서 교유한 중국의 문인·학자가 성리학에 깊은 조예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중국의 성리학에 직접 접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충목왕 때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도를 강조한 것은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사(詞)에서 독보적 존재로 일컬어지고 있다.

고려의 한문학을 체계화시켜 한 단계 높게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를 통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색(李穡)이 묘지명에서 "도덕의 으뜸이요, 문학의 종장이다(道德之首 文章之宗)" 라고 말한 바와 같이 후세에 커다란 추앙을 받았고, 경주의 구강서원(龜岡書院)과 금천(金川)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공민왕 묘정에 배향되었다.

8. 順正大君 諱 王璹

순정대군 휘 왕숙

국재공의 세째 사위로서 원(元)의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고 순정대군(順正大君)에 봉호되었다.

9. 淮安大君 諱 王珣

회안대군 휘 왕순

국재공의 넷째 사위로서 왕실의 종친이고 시호는 장순(莊順)이다. 공의 장남 언서(言胥)는 익성부원군(益城府院君) 차남 형(詗)은 창원군(昌原君)이다.

〈편집인 권경석〉